

반기 선교팀 신청서 ③

출력날짜 : 2019-08-11

※ Team No : 2019-022

1. 신청부서 : (팀명 : 몽골5팀)
 2. 선교국가 : 몽골 3. 사역지 : 울란바트라 4. 공 항 :
 5. 사역기간 : 2019년 08월 14일 (수) ~ 2019년 08월 21일 (수) - 7박 8일

선교위원회 확인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12m	선교	이성호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지역	CMTC		교적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차	2차						
1	팀장	시무 장로	변창대	7		○	○	94-954					
2	총무	시무 장로	임연수	8		○	○	546					
3	서기	시무 장로	남용승	12		○	○	80-755					
4	회계	시무 장로	허만선	3		○	○	82-648					
5	의료	시무 장로	김성호	3		○	○	84-230					
6	팀원	시무 장로	안석현	3		○	○	2745					

- ※ CMTC 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2019. 3. 양식변경]

담당 분과장

8/11 황수안	8/11 정재명
-------------	-------------

몽골5팀 선교소감문

(작성자 : 김성환)

장로 선교를 하시라 신뢰하라는 지시들을 받고,
2주간 선교에 적극 참여하리 못하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을 몽골 선교를 하시라 했다.
4~5년 전 히브리 성경을 한 권이 있었든 몽골.
2주안에 여러번 된 분수와 수자가 감동하여 하는 '세
백년'가? 기록하여 성경을 준비하리 ...
1785 8월의 사명을 수혜가 되리 마련했다.
예수님을 안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몽골 땅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할 디를 제1선
수이신 선교사님들께 맡기고 기록하리 장려하리,
내 마음을 이야기하리 ...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이 되었다.
회개할 회개할이신 기록하리 회개할 디하리
제1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읽으리 제1선 기록하리
그 땅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2 분들이 돼도 하는 성경을 관습을 가리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회개할을 중점으로 회개할 복음 하나 되어
영생을 주님을 알았든 복된 시간 주셨음을 감사드린다.

2018. 8.

(작성자 : 이진수)

즉히, 물결은 우리교회 외선부출신으로 충신을 출당하고 대성받은 대성사역자와
한지에서 발동된 물결 장로회 인양생 세이문시 현지 사역자들이
여섯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교회가 현지사역자를
발동하여 사역하는 국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엔 서울경제이론을 위한 초원의 몇 교회의 경우, 10마로만
거기까 물에 잠기는 저지대에서도 빈민사역을 하면서, 아직 교회에
필요한 의사가 부족하고, 동절기 대비 난로보수가 필요하느 등
우리교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우리 모두가 지원하는 연세사망자들이
다른 생애를 이 세상에 자살이 무수하며, 복을 주며, 알은
물론 ~~사냥도~~ 농사도 짓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연세가 조그맣고 기다릴 때는 ~~사냥도~~, ~~농사도~~
~~물론~~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다

몽골의 세 명의 사위들과 여섯 고위 관리가 이만세령의 도원을 막아내고
북쪽 산악에 뿌리박힌 병졸들을 ^{몽골 땅의} $\frac{1}{4}$ 으로 줄여내도 될지 묻겠다.
시일 받기름 기도합니다.

몽골5팀 선교소감문

(작성자 : 남 동승)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몽골 5팀으로 몽골 사역 잘 하였음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몽골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 한다고 하였지만
직접 이곳에 와서 이곳 사역자들을 함께 심방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 우리의 부족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양회를 구원하는 것이 직접 눈으로 보며 행하니 이득이
어려움과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사역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을 비롯하여 경운라는 신분을 내걸고 다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본교에 돌아가서 단기선교와 선교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득을 위하여 무엇으로 존재해야 할까 생각하며
내가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단기 선교사역에 대하여 열심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몽골5팀 선교소감문

(작성자 : 안석현)

먼저,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과 기도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은 나의 영성을 전진하며 전적으로 성결만을 의지하고 쉼이 하나가 되려는 은혜의 시간이였다.

준비 과정 속에서 역사가 잘 안되자고 찬양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형식화(구식화) 거렸던 것이 되돌아보면 좋은 추억으로 남은 은혜의 시간이였다.

> 우리팀 사역처는 몽골 현지에서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지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사역 역할을 알아 보는 것이였다.

울란바트로의 3군데 사역지와 ~~해~~ 1관할 지역의 세군데 교회였다.

울란바트로 사역지는 한센사당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세명의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양육, 훈련시켜서 현지의 신학생으로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감사하며 ~~우리의~~ 좋은 나침의 시간을 가졌다.

> 몽골 1관할 지역은 2004년 파송한 자르갈 선교사의 선교지역으로 세군데를 개척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다.

15년동안 연립없이 오직 성결만을 의지하는 신앙과 교회의 이름(선한 목자교회, 중현 기쁨교회, 시온교회)로 기도하면서 지냈다고 하는 교부, 시온교회 방문시 현지인 리려(5명)와 함께 격려하며 기도의 제물을 나누며 찬양을 드렸던 시간은 ~~가장~~ 선교에 대한 나 자신은 돌아보는 시간이였다.

> 각 사역처와 나누었던 현지인 사역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 한다.

몽골5팀 선교소감문

(작성자 : 허마선)

주님의 은혜로 라기신교(몽골5팀)에同工하였습니다.
인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2번의 주일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長平 팀
이어서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공회堂 이주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3번째 몽골선교인 셈입니다. 이번에는 현지 사역자들의 교회 방문 /
협업 선교를 해야 하는 점을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지 교회의 사역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팀장의 leading
대로 충실히 하게 숙고해야 하는 것을 당면한 의무 사항인 셈이죠.
첫 번째, 현지 신학교(한족인이 교수)를 방문하여 은혜 강해를 성회 등을
수 있게 되어 다들 스럽게 생각되었던. 전전하는 방향으로 은혜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
니다. 몽골 총회 내
두 번째, ~~총회~~ ~~총회~~ 교회 방문 / 관치나 시 사역자 다 많은 처지를 나누는
관계로 하여 복음시간을 강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되었으나, 앞으로
가능성과 교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 준 대담이었습니다.
관치나 시 사역자들 성기는 몽골 총회 내를 방문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대회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곳 교회 중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역자의 영향과 주교를 깨닫게
주는 방문이었습니다.
셋째 밤에는 '최라구덴다시' 사역자들 성기는 천주교의 빛 교회 방문하였습니다.
주변에까지 영감을 주어 전도에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한개교. 현지인의
승복과. 여러번 복비한 사랑이어서 기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O 아버지!
이 천복의 곳에 그리스도의 제정이 있게 하옵소서'
셋째 밤에는 '사랑자야기' 성기인 침례하는 교회 방문하여 극양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2명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자야는 예수의
복으로 대령부 들었습니다. 큰 변화. 지혜롭고, 성실하고, 기도하는 다모가
있었습니다.
끝. 몽골의 사역자들 지교회들이 복음하고 O에 영감되는 것이
속히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